

[스크랩]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

착한하늘다리 | 13.06.08 | 30

목록

댓글 0

가

가

예수가좋다오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

김연숙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22년 동안 미국 이민 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주보,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날날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그의 장례식이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 그의 장례식을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은 수십 권의 노트를 던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상향의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상향의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의 공동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16:18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磐石)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陰府)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공동체에 대항하고 훼방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저주가 많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불행이 닥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박찬선이라는 여자 성도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시집가서 6개월만에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빚을 떠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곳마다 도둑이 들어 그나마 있는 것도 자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화도 안 되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보니 아내가 꼭 미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40일 새벽예배를 작성하고, 교회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10절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에 정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도난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업히고 설킨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편의 회사가 품질경영우수상, 대통령상을 받고 점점 번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우울증에서 고침 받고, 큰 아파트도 구입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강문호 목사 설교중에서--⑥



**예수가좋다오/는 가슴이 쫄한 감동 글과 영상 교육
자료와 명쾌한 기독교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글을 보시고 스크랩 하시기 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로 따뜻한 소감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스크랩출처 : [예수가좋다오](#)

글보관 | 신고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기독교자료 다른글

< ● ○ ○ ○ >

도봉구민회관*서세원 목사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

가짜가 많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신천지 교리는 거짓`

[CBS 간증] 목회자 자녀였지만 무신론자, 안티기독교...

“자식·남편 다 버려도 신천지는 절대 포

신천지 이만희씨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만희 교주에 ‘공개토론’ 요구

신천지 `심리검사'로 접근

Re: 금식기도는 왜 하는것입니까?

